

라오스 2017: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의 혼재

이 요 한*

<국문초록>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

*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제어: 라오스, 반부패 정책, 국경 문제, 중국, 캄보디아, 일대일로, 경제회랑, 공적개발원조, 고용허가제

I. 서론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었다. 2016년 10년만의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2017년은 신 지도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1975년 사회주의 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라오스 국내정치는 1당 중심의 정치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는 2017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2017년은 라오스 거버넌스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라오스의 부패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는 123위(176개국 중)로 전년도에 비해 16계단이나 상승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거버넌스의 주요지표나 언론의 자유도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외교부문에서는 접경 국가인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가 불거졌고,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더 확고해졌다. 2017년 2월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 부문의 갈등과 군사적 움직임이 고조되었으며 8월 분쟁의 절정에 이르렀으나 캄보디아 훈센(Hun Sen)총리의 라오스 전격 방문 이후 분쟁이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약 14%가 명확한 영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재연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2017년은 중국의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 확장이 가시화된 한 해였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이라는 큰 구상 속에 라오스로의 인프라 구축 특히 중국의 쿤밍(Kunming)과 라오스의 비엔티안(Vientiane)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11월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양국의 공동운명체를 선언하고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및 란창-메콩(Lancang-Mekong) 협력의 틀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 라오스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경제부문에서는 최근 몇 년간 호조를 보인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지만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해외 자본의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가 라오스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다. 2017년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는 한-메콩 협력 틀을 활용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며, ODA를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도 지속되었다. 양국간 경제관계에서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 라오스가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첫 근로자 파견이 추진되었다. 특히 금융 기관의 양국 간 MOU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고는 2017년 라오스의 정치, 외교(국제관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라오스의 주요 행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정치외교 분야

1. 반부패(Anti-corruption) 정책

라오스는 1975년 이래 라오스 인민혁명당(LPRP: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1당 집권체제가 2017년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라오스에는 야당이나 반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도 없는 상황이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2017년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2017)에서 라오스는 총 180개국 중 17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에 173위에서 3계단이나 오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언론 자유의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2017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도에서도 라오스의 언론은 ‘자유롭지 않다(not free)’는 평가를 받았다(Freedom House 2017). LPRP는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인터넷상에서의 막스-레닌주의를 비난하는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였다. 또한 2016년 총리령(Prime Minister Decree)은 외국인 언론사가 라오스에 지사를 설립할 때 사전검열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공표하였다(국경없는 기자회 2017).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권력 집중은 소수권력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부패를 가져왔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4). 라오스가 최빈국의 경제수준에 머무는 동안에도 고위 관료들은 부패로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Santaniello 2016). 라오스가 수행하는 수력발전 댐 건설, 광산 개발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원조 자금의 유입은 관료들의 부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2012년 공무원 급여를 100% 이상 대폭 올렸으나 국가재정의 위기로 이듬해 다시 삭감하는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Fawthrop 2017).

2016년 대통령과 총리 교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지도부는 라오스 정부 최고위 인사의 부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2017년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통상 전 총리 재임시절인

2015년 재무부 장관이자 전 중앙은행 총재였던 푸펏 캄퐁봉(Phouphet Khamphounvong)을 비롯한 4명의 고위관료가 지방도로 건설을 빙자한 ‘유령(ghost)’ 프로젝트를 진행한 혐의로 동년 12월 체포되었다(Hutt 2017a). 당시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없었던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이 2016년 4월 총리에 오르게 되었다(Gunn 2017).

<표 1> 라오스 거버넌스 지표

부패인식지수	기업경영여건	글로벌경쟁력지수	GDP 순위	인간개발지수
123(176)	141(190)	98(138)	113(195)	138(188)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7; World Bank Group 2018; World Economic Forum 2017; UNDP 2017.

참고: ()는 총 대상국

통룬 총리는 부패의 해결만이 라오스 인민혁명당 집권의 정통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표명한바 있다. 통룬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총리로 재직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외교부 장관을 겸직하였으나 현재까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바가 없어 개혁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오스 전문가인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이안 베어드(Ian Baird)는 “통룬 총리의 투명하고 개혁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Hutt 2017a).

라오스 국가감사국(SIA: State Inspection Authority)은 최근 관료들의 부패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액이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의해 착복되었으며, 부패로 인한 손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2,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SIA는 부패에 연루된 71명의 공무원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25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1,900명의 중앙공무원과 14명의 지방 공무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패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거가 이루어졌으며 98억 껌(Kip, 한화 약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Hutt 2017a). 통룬 총리는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벌목과 국외 반출을 금지했으며, 대외 개방정책을 통한 라오스 경제 제도의 개혁을 시도했다. 또한 2017년 들어 기존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고급외제차 제공 제도를 철폐하였으며 총리 자신이 사용하던 승용차(BMW 7 Series)를 국가에 반납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6년 라오스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순위는 123위(176개국 중)로 전년도에 비해 16계단이나 상승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만연했던 라오스의 부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의지와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경우 통룬 총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반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논쟁의 대상이던 팍벙(Park Beng)댐에 대한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의 간담회가 2017년 2월 22-23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려는 움직임은 통룬 총리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통룬 총리의 부패 문제에 대한 입지 또한 불안정하다. 반부패 정책을 강화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반인 고위 관료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완화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경제성장과 대외개방 시대에 부패해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필수 요건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2. 라오스-캄보디아 국경분쟁

캄보디아가 2017년 2월 국경을 맞댄 라오스 아타푸(Attapeu)주 인근 스텡 트랭(Stung Treng)주의 시엥팡(Sieng Pang) 지역에 257km 규모의 도로 건설을 계획하자 라오스는 2월 8일 4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이 지역에 캄보디아인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국에 영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라오스 군부 입장에서는 목재 등 주요 무역로로 활용되는 동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오스 군의 역할은 오알레이(O'Alay) 지역 내 캄보디아 국적의 도로 건설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지만 캄보디아 지역의 도로 공사는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다(Avary & Muoung 2017).

2017년 2월 22-24일까지 분냥 보라চিত(Bounnhang Vorachit) 라오스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여 분쟁 지역을 포함한 양국의 국경 문제에 대해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와 대화를 나누었다(Connor 2017). 2017년 4월 25일 양국의 실무 장관이 국경 지역에서의 분쟁과 범죄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화해모드로 전환하였다(Odom 2017). 양국 간의 분쟁은 7월까지 소강상태를 지속하였으며 라오스의 병력 역시 40~8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주둔 형태도 상시에서 준 상시(semi-permanent)로 완화되었다(Avary & Muoung 2017).

2017년 8월 들어 훈센 총리의 라오스 국경 분쟁 이슈에 대한 대응이 갑작스럽게 활발해졌다. 훈센 총리는 8월 2일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지도를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캄보디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훈센 총리는 라오스의 접령 지역인 오탕아브(O'Tangav)와 오알레이 지역이 캄보디아에 속해 있으며, 현재 라오스 군의 주둔은 캄보디아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철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진 친서를 통론 총리에게 전달했다(Vannarith 2017).

라오스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캄보디아는 8월 11일 수천 명의 군 병력을 파병하고 전차와 BM-21 다연장로켓발사기 등 중화기를 배치하며 6일 이내의 라오스 군을 철수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튿날인 8월 12일 훈센 총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을 전격 방문하여 통룬 총리 및 살롬사이 코마싯(Salemxay Kommasith)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가진 후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의 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Prak 2017).

양국 총리는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통룬 총리는 “양국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우리(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번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시사했다. 훈센 총리도 회담 직후 “라오스가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향후 양국간 국경 문제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우려했던 양국 국민 역시 라오스-캄보디아 정상회담이라는 대화를 통해 해결된 것을 환영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함께 인도차이나 지역을 점령했던 서구 식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결속했던 우정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최근 연평균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지속하며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정은 해외투자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으로 1만 6천명의 캄보디아 관광객이 라오스에 방문했으며, 양국간 무역 규모도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양국의 평화 유지는 국익에 가장 최우선되는 과제로 향후에도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이번 분쟁은 양국 정상의 기민한

대응과 타협으로 극적인 해결을 보았으나, 양국 국경의 14%가 국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영토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Prak 2017). 따라서 향후 양국 간 영토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영향력 증대

2017년 라오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라오스에 2017년 기준 누적규모로 총 7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2016년 라오스의 총 GDP가 159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 라오스 투자는 GDP의 1/3을 넘는 규모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양국의 무역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21억 달러에 달한 제 2의 무역국이며 지난 5년간(2012~2016년) 중국은 기존 최대투자국인 태국을 제치고 라오스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대 라오스 투자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라는 슬로건 하에 철도 건설과 수력발전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물 자원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이 8억 달러를 투자한 남우(Nam Ou) 댐의 경우 향후 29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용량은 1,156MW, 연간 생산량은 5,017GW 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2017년 2월 후아이 라응(Huai La-Nge) 댐을 건설하기 하였으며 용량은 60 MW, 투자규모는 1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라오스와 중국은 윈난성 쿤밍(Kunming)에서 비엔티안까지 연결되는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2016년 12월 25일 루앙프라방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총 연장 길이는 500km에 달하며 2017년 11월 현재

20~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총 노선의 62.7%가 터널과 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2개의 역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속 160km로 운영될 계획이다. 투입 비용은 57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이 70%, 라오스가 30%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라오스의 부담 분은 토지 제공이 포함되어 사실상 중국의 전액 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 공사 역시 100% 중국의 기술·장비·노동력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라오스와의 관련 교역 및 투자로의 확산 효과(spill over effect)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15~23일 베이징과 윈난에서 연속 개최된 회의에서 2018년 중으로 국경 부근의 보한(Bohan)역 건설이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의 보한과 라오스의 보텐(Boten)역을 잇는 총 9.5km(중국 내 7.1km, 라오스내 2.4km) 길이의 터널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철도가 완료되면 쿤밍에서 비엔티안까지 6~7시간 소요(현재는 도로로 약 30시간 소요)되어 교통 인프라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쿤밍은 중국 내 70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철도 건설의 경우 중국 내 4개의 ICT 기업이 인터넷과 이동통신 분야에 향후 5년간 36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제조업·부동산(신도시 건설 포함)·비엔티안 공항 확장 등의 분야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2017년 11월 13일 라오스 방문은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7년 11월 13일). 부주석 시절인 2010년 6월에도 라오스를 방문한 바 있는 시진핑 주석은 이번 베트남 APEC 회의 참석 이후 ASEAN 국가 중 라오스만 방문하여 각별한 우의를 나타냈다. 시진핑 주석은 라오스를 “친밀한 사회주의 이웃국가”라고 칭하는 한편 “양국 관계는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라오스가 공동운명(common destiny)이며 앞으로 에너지·금융·전력·인프라·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라오스 방문 중 총 17개의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특히 중국-라오스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는데 총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경제회랑 내에는 기능 연구장·과학기술 연구소·중소기업 부지·전력 송전·도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Pongkhao 2017).

중국 입장에서 라오스는 접경국가로 전력·교통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무역·투자·인프라·관광 분야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철도와 수력 이외에도 향후 경제협력지대(economic cooperation zone)·위성 부문까지도 라오스와 전략적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양국은 2017년 11월 20일 제 1차 ‘라오스-중국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하여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2018년 개최 예정인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회의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메콩 권역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내 라오스의 영향력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자본과 투자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라오스 정부의 과제다. 라오스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 차관인 라타마니 쿤니봉(Rattnamany Khounnivong)에 따르면 철도 공사 구간 중 라오스 부문은 420km에 달하며, 이주민은 총 4천4백 세대나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 3천8백 헥타르(안전지대 포함 9천 헥타르)의 면적이 공사지에 포함되는 만큼 지역민의 이주와 소음 및 환경파괴로부터의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Morgan 2017).

2016년 4월 공포된 법령 84(Lao Decree 84)에 따르면 개발로 인해 이주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부동산·가축을 보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7천여 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에 있어서도 단지 1~2천 명 정도만 라오스인이 고용되고 나머지는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어 라오스는 정부 차원에서 현지 지역민의 고용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의 투자 포기나 라오스 정부의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 킹 로만스(King Romans)그룹은 라오스 북부 보깨오(Bokeo) 지역의 국제공항을 신설하기로 했던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2014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공항신설 사업은 이주 작업도 거의 마친 상황에서 공항신설에서 기존 공항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라오스 내 확대되던 중국 바나나 농장이 중국 농장주의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 파괴와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2017년 1월부터 비엔티안 내 신규 투자 및 기존 허가연장을 금지시키는 등 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미림 2017).

Ⅲ. 2017년 경제현황과 한·라오스 관계

1. 경제현황

라오스의 경제규모는 2017년 기준(추정치) 172억 달러로 195개국 중 113위에 해당되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568달러(구매력 기준)에 이른다. 산업구조(2016년 기준)는 서비스업이 39%, 제조업 33%, 농업 22%로 아세안 국가 중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표 2> 라오스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GDP	억 달러	133	144	158	172	187
1인당 GDP	달러	2,075	2,212	2,394	2,568	2,756
경제성장률	%	7.6	7.3	7.0	6.9	6.9
재정수지/GDP	%	-4.1	-2.4	-5.2	-5.2	-5.2
물가상승률	%	4.1	1.3	2.0	2.3	2.7
정부채무/GDP	%	58.4	57.6	58.9	62.0	6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b)

참고: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예상치

라오스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표 2>와 같이 지난 4년간 (2014~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7%를 상회하여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다. 전력 수출의 호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이 라오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2017년 전반기에 수출 전력은 전년 대비 34.8%가 증가했으며 시멘트 생산량은 14.6%가 증가했다. 동기간 1인당 국민 소득도 40% 이상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도 국제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3% 내외로 ASEAN 개도국 중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2018년 경제성장률도 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30억 달러 규모의 사야부리(Xayaburi)댐이 2019년 완공되면 경제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ADB 2017b). 반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6년 이후 -5%대로 악화되었고 정부채무를 역시 2017년 62%를 기록하는 등 최근 상승하는 추세여서 라오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표 2>.

<표 3> 라오스 대외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환율	깍(Kip)	8,049	8,147	8,179	8,367	8,584
경상수지	백만 달러	-1,178	-2,277	-1,234	-1,205	-1,323
경상수지/GDP	%	-8.9	-15.9	-7.8	-7.0	-7.1
수출	백만 달러	2,662	2,769	3,352	3,637	3,801
수입	백만 달러	4,271	5,233	4,740	5,000	5,250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875	1,043	847	975	8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b)

참고: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예상치

2017년(추정치) 수출은 33억 5천2백만 달러, 수입은 50억 달러로 적자규모는 12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율은 -7%에 이른다. 주요 수출품은 목공예품·커피와 같은 농산물, 주석·구리·금과 같은 광물, 수력을 이용한 전력 등이 있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소비재 등이 있으며 교역조건이 나빠 항상 라오스는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의 미발달과 댐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 확대로 인한 자본재 수입 급증 또한 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2017년 연평균 환율은 1달러 당 8,367 깍(Kip)으로 전년도에 비해 2% 절하되었으며, 외환보유액은 9억 7천 5백만 달러로 약 1억 3천만 달러 증가했지만 월 평균 수입액의 2개월 정도에 불과한 규모이다<표 3>.

라오스의 대외경제에서 취약성은 태국 및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라오스 수출의 약 30%, 수입은 약 60%나 차지하고 있어 태국의 경제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라오스의 산업은 2016년 기준 광업제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며, 관광업 또한 동년 7.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액을 달성하였으며 수출액 대비 관광수입 비중은 2013~16년 평균 14.3%를 기록하며 라오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2017년 전반기 관광산업은 베트남과 유럽 여행객의 상대적 감소로 전년 대비 9.8% 성장률로 약간 주춤했지만 동 기간 관광 수입은 8억8,700만 달러로 전년도 7억6,7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ADB 2017b).

라오스 기획투자부가 2016년 4월 발표한 ‘제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에 따르면 빈곤률(poverty rate)을 2013년 23.2%에서 2020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까지 3,190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GDP 평균성장률을 7.5%로 유지해야 하며, GDP 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는 농업 3.2%, 제조업 9.3%, 서비스업 8.9%로 목표를 두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8).

<표 4> 라오스의 주요 사회지표

항목(연도)	지표
평균 수명(2015)	65세
문해율(2015)	85%
초등교육 완료율(2015/2016)	77.6%
산모 사망률(10만 명당, 2015)	206명

자료: ADB(2017)

2. 한·라오스 외교관계

양국은 1995년 재수교(1974년 첫 수교 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한 이래 1996년 경제과학기술협정과 투자보장협정, 2006년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2009년 (한국인) 사증면제협정, 2010년 항공

협정을 맺는 등 우호적이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왔다(이요한 2013). 안정된 양국 관계는 교역 및 한국의 대 라오스 투자,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오스로의 한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기반이 되었다.

2017년 한국과 라오스의 외교 관계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7년 3월 23일~24일 양일간 라오스 남부 참파삭(Champasack)주의 주도인 팍세(Pakse)에서 5개국 메콩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한·메콩 협력이 아세안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외교부 보도자료 2017년 3월 24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라오스 살름싸이 콤마싯(Saleumxay Kommasith) 외교장관은 2017년 9월 1일 부산에서 개최한 「제 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양측 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년간 협력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을 채택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메콩 3대 비전(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 중심의 개발) 및 6대 우선협력분야(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 개발)별 협력 목표와 사업을 구체화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7년 9월 1일).

양국 외교장관은 메콩장관회의와 별도로 2017년 8월 29일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협력관계발전 방안을 포함한 정부·국방 협력, 교역·투자·개발 등 실질협력,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해 8월 5일 발표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강력한 대북메시지에 라오스 측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한반도 긴장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연합뉴스 2017년 8월 29일). 양국은 한·라오스 실질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라오스 정부의 투자촉진법 개정을 환영했으며, 라오스는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한국은 또한 대 라오스 유무상 원조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및 추진계획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유기적 추진을 희망하였다. 또한 살림싸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라오스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농촌개발 및 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2016년 체결된 「고용허가제 MOU」에 따라 2017년 처음으로 라오스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7년 8월 29일). 살림싸이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제 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 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n Latin America Cooperation)에 참석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나누기도 했다(KPL 2017년 8월 30일).

라오스는 ODA 분야 한국 24개 중점 협력국 가운데 하나로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1987-2016년간 대 라오스 ODA 규모는 총 3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수원국 중 11위를 차지하며 무상 원조 규모는 8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017년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 1차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 (Korea-Lao Integrated ODA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국 측은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KOICA, 수출입은행, 재정정보원, 주라오스 대사관에서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라오스 측은 기획투자부, 외교부, 총리실, 재무부, 공공사업교통부, 교육체육부 등 12개 부처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양국은 ODA 정책 및 전략, 구체사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의 대 라오스 ODA 지원이 통합적·체계적·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특히 물관리 및 보건 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 개발 분야에 총 ODA 원조 규모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2017년 11월 12일).

이외에 정우택 국회운영위원장은 쉰푸 두왕사완(Somphou Doungsavanh) 라-한 친선협회장 겸 라오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장과 면담을 갖고 상호 국회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정치 교류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했다. 이 면담에서 라오스 국회사무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직원들의 석박사 장학생 지원을 제안했다(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8년 1월 3일).

3. 한·라오스 경제관계

2017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 라오스 교역액은 1억 8백만 달러로 라오스는 한국의 무역 대상국 260개국 중 110위를 차지하였다. <표 5> 와 같이 2013년부터 5년간 한국과의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3년 1억 9천만 달러, 수지 1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라오스와의 교역에서 항상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흑자 규모는 <표 5>와 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5> 한국의 대 라오스 교역 추이

년도	수출		수입		교역 (천불)	수지 (천불)
	금액 (천불)	증감률 (%)	금액 (천불)	증감률 (%)		
2013	187,050	13.3	12,482	10.0	199,532	174,568
2014	156,036	-16.6	18,036	44.5	174,072	138,000
2015	170,369	10.8	28,418	57.6	198,787	141,951
2016	126,414	-25.8	22,742	-20.0	149,156	103,672
2017	84,948	-26.0	23,093	6.5	108,041	61,855

자료: 무역협회 K-stat.

참고: 2017년 자료는 11월까지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부품이며, 수입 품목은 목재류, 칼륨비료, 커피류 등이 있다. 투자 건수 및 규모는 2016년 15건 및 5천8백만 달러이며 누계 기준으로는 131건 및 3억 8천 6백만 달러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7b).

한국과 라오스의 경제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과 노동 분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2월 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솜파오 화이싯(Somphao Phaysit)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와 상호 교류 및 기술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KPL 2017년 12월 7일).

노사발전재단은 2017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 노동부 대표단을 초청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라오스는 2016년 고용노동부와 라오스의 노동사회복지 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6번째 송출국가로 편입되어 2017년 4월 한국에 파견할 노동자 500명을 선발하는 한국 어능력시험(EPS-TOPIK)을 시행했으며, 2017년 하반기 처음으로 근로자를 송출할 예정이다(뉴시스 2017년 11월 13일). KEB 하나은행은 2017년 7월 14일 비엔티안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라오스 자산 규모 기준 1위 은행인 BCEL(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Lao Public)과 송금 및 무역금융 분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양 은행은 업무 제휴에 따라 원활한 근로자 파견과 금융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데일리안 2017년 7월 16일).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라오스 예금자보호기금(DPF: Deposit Protection Fund)을 방문하여 협력사업 보고 및 향후 상호협력관련 MOU를 체결했다(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접속일 2018년 1월 3일).

IV. 결론 및 2018년 전망

2018년 라오스의 국내정치에 큰 변화는 예측되지 않는다. 다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 라오스 지도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집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핵심 리더인 통룬 총리가 과연 기득권의 부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타협에 그칠지 주목된다. 특히 라오스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장’과 ‘부패’의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가 통룬 총리의 중요한 과제다.

2018년 국제관계에 있어서 아세안 통합의 큰 흐름 속에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7년 불거졌던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2018년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서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 라오스 진출은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2018년 역시 무역·투자·원조 모든 부문에서 활발한 양국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오스 내 중국 투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반발이 예상되며, 중국의 라오스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베트남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라오스 경제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비엔티안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58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사업 등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의 지속적 추진과 싸야부리 댐 건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투자 유입은 라오스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다(Vietnam Plus 2018). 또한 베트남과의 협력 사업이 증가하고 2018년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 2018)로 관광객 증가도 예상된다. 라오스 정부는 2018년 관광객 수는 5백만 명, 관광 수입은 9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Vientiane Times 2018년 1월 5일).

이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성장의 저해 요인인 만성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투자의 확대는 라오스의 정치외교적 예측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라오스의 순위가 2015년 136위, 2016년 139위 2017년 141위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신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한-메콩 기금 증액’, ‘ODA 중점지원국’이라는 틀에서 라오스와의 외교적 협력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에어(Jeju Air)의 인천-비엔티안 신규 취항으로 인해 양국간 총 5개의 직항 노선은 한국의 라오스 관광객 유입, 라오스 노동자의 한국 유입을 포함한 양적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라오스의 협소한 시장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양국간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미림. 2017. “라오스, 중국의 바나나 농장 투자·운영 중단 명령.”
이머틱스 이슈분석. 7월 13일.
- 뉴시스. 2017. “韓 노사상생 사례 캄보디아·라오스에 전파.” 11월
13일.
- 데일리안. 2017. “KEB하나은행, 라오스 BCEL과 MOU 체결.” 7월
16일.
- 연합뉴스. 2017. “한국의 원조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라오스..한류열

- 풍 본격 접화.” 6월 10일.
- _____. 2017. “강경화 ‘추가 안보리 대북제재 미국과 긴밀 논의 중,’” 8월 29일.
- _____. 2017.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베트남· 라오스 국민 방문.” 11월 3일.
- 외교부. 2017. “5개 메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통한 ASEAN 통합 기여.” 보도자료 3월 24일.
- _____. 2017.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보도자료 8월 29일.
- _____. 2017.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 중인 메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다 - 제 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9월 1일.
- _____. 2017. “제 1차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11월 12일.
- 이데일리. 2017. “한국은행, 라오스중앙은행과 MOU 체결.” 2017년 12월 1일.
- 이요한. 2013. 『메콩강의 진주』 (한울출판사).
- 한국수출입은행. 2017a.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9월.
- 한국수출입은행. 2017b. 『2018 세계국가편람』. 12월 22일.
- 한명규. 2015. 『비밀의 라오스』 (매일경제신문사).
- ADB(Asian Development Bank). 2017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Emerging from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Development Effectiveness Brief*. Manila.
- _____. 2017b. “Sustaining develop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7 update*. Manila.
- Avary, Max & Nareth Muong. 2017. “Troops from Laos and

- Cambodia in cross-border standoff over road construction,” *Radio Free Asia*. 5월 16일.
- Connor, Logan. 2017. “Laos president visits Cambodia amid border dispute.” *Southeast Asia Globe*. 2월 22일.
- Fawthrop, Tom. 2017. “Killing the Mekong dam by dam.” *The Nation*. 2월 14일.
- Finney, Richard. 2017. “Chinese developer abandon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in Laos SEZ,” *Radio Free Asia*. 11월 8일.
- Gunn, Geoffrey C. 2016. “Laos in 2016: difficult history, uncertain future.” *Asian Survey*, 57(1), 206-210.
- Holmes, Oliver. 2017. “Cambodia threatens purge of critical media and US Charity.” *the Guardian*. 8월 23일.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Powering Investment in Laos.” *Thailand Business News*. 11월 9일.
- Hutt, David. 2017a. “Little Laos tackles big corruption.” *Asia Times*. 2월 16일.
- _____. 2017b. “Is Laos’ new leader really a reformer.” *Diplomacy*. 4월 26일.
- KPL. 2017. “Lao Foreign Minister pays a courtesy visit to S. Korea Premier.” 8월 30일.
- _____. 2017. “Lao and RoK central bank strengthen cooperation.” 12월 7일.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June.
- Morgan, Charles William Jr. 2017. “High-speed rail project will force thousands of Lao families to relocate,” *Radio Free Asia*. 11월 22일.

- Odom, Sek. 2017. "Cambodia, Laos sign border crime pact, sidestep land dispute." *The Cambodia Daily*. 4월 26일.
- Pongkhao, Somsack. 2017a. "Xi's state visit sees Laos' investment profile, opportunities rise," *Vientiane Times*. 11월 20일.
- _____. 2017b. "Minimum wage hike in the pipeline." *Vientiane Times*. 11월 22일.
- Prak, Chan Thul. 2017. "Laos says it will withdraw troops as Cambodia's Hun Sen visit," *Reuter*. 8월 12일.
- Santaniello, Dino. 2016. "Laos: anti-corruption laws key to economic development,"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9월 20일.
- Seanly, Phak & Shaun Turton. "Laos withdraws troops after Hun Sen ultimatum," *The Phnom Phen Post*. 8월 14일.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2014.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lls on Southeast Asian governments to set up ASEAN Integrity Community." 12월 18일.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7.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6*. 3월 21일.
- Vannarith, Chheang. 2017. "Cambodia-Laos border tension," *Khmer Times*. 8월 22일.
- Vientiane Times. 2018. "Laos could sustain economic growth through mega projects" 1월 5일.
- Vietnam Plus. 2018. "Laos' economic growth may reach 7 percent in 2018" 1월 5일.
- World Bank Group. 2018.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9월 26일.

[인터넷 자료-검색일]

국경없는 기자회(<https://rsf.org/en>) - 2017년 12월 26일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la-ko>) - 2018년
1월 3일

프리덤하우스(<http://freedomhouse.org>) - 2017년 12월 26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2018년 1월 2일

(2018. 1. 10. 투고, 2018. 1. 18. 심사, 2018. 2. 7. 게재확정)

<Abstract>

Laos 2017: The Coexistence of Political Stagnation and Economic Change

LEE Yo Han
(Korea University)

Laos' 2017 is a year of political "stagnation" and economic "change". In the political arena, despite the achie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progress of the reform. Diplomatically, the influence of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particular, since November 2017, Xi Jinping's visit to Laos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corridor and Lanchang-Mekong Cooperation Meeting. And Laos continued to have friendly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e ASEAN countries. However, the issue of the Laos-Cambodian border issue following the general election in Cambodia may recur. The economic sector maintained a high growth rate due to capital inflows from the construction of large infrastructures and the favorable tourism industry, but structural problems such as deficits in the fiscal and current account should be resolved. Korea and Laos discussed the comprehens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Mekong Senior Officials' Meeting in March 2017 and the Ministerial Meeting of the Korean-Lao Foreign Minister in September 2017. Laos is Korea's eighth ODA aid (grant), and ODA will become an important diplomatic cooperation channel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In the economic relationship, the trade sector is on a declining trend, but investment and human exchanges are steadily increasing.

Key Words: Laos, Anti-corruption policy, border issue, China, Cambodia, One Belt One Road, Economic Corrid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Work Permit System

